보도자료

보도분류	브리핑(　) 보도자료 제공(✔)
보도일시	**2022. 8. 8.(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**
작 성 과	스마트시티과
담　　당	과장 정윤희, 스마트인프라팀장 신무남, 담당 신은선(032-453-7472)

IFEZ · iH, 검단신도시 스마트도시 리빙랩 과제 해결에 힘모은다

스마트 버스 쉘터·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해결 스타트업 3개사 선정·협약 체결

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도시공사와 협력, 최근 'Smart-X City(인천도시공사) 프로그램'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최종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.

○ 이번 프로그램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검단 신도시 시민 참여 리빙랩과 연계해 도출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·서비스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모집함으로써 무선 충전 가능한 온·냉의자 등 실증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.

○ 스마트 버스쉘터 분야에 △(주)씨티콘(생활 밀착형 스마트 청정 승차 대기소), △세기애드(무선 핸드폰 충전이 가능한 온·냉의자)가 각각 선정돼 검단 신도시 버스정류장 1개소에 제품을 설치,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.

○ 또 스마트 횡단보도 분야에 △(주)글로벌브릿지(스마트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안전시스템)가 선정돼 한별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제품을 설치하고 오는 12월까지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.

○ 선정된 3개 업체의 제품은 검단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직접 제품을 체험하고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이다. 또 우수 해결사례로 선정된 스타트업은 인천도시공사의 본 설계에 반영될 수 있어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및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장병현 인천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은 “시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타트업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또 제품에 대한 실증을 진행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”며 “앞으로도 시민들과 스타트업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축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